

研究論文

경북 북부지역 근대문학자들의 유학전통의 사유와 신념의 변화양상*

한 경 희**

I. 들어가는 말	IV. 조상의 유풍을 개인의 심성으로 내면
II.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의리·명분을 펼치는 문장	화한 문장
III. 덕성함양(德性涵養)과 생활개선을 교육 하는 문장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유학은 철학체계이면서 통치의 방법이자 생활세계의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준거점 역할을 지속해 왔다. 근대 이전의 문화는 유학적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1) 이런 까닭으로 문학세계의 유학 영향관계를 고찰하는 일은 유학의 직접 영향과 구체적 관련성이 너무 평범해질 우려가 있다.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애를 둘러싼 기록을 추적하는 방법에서 그 평범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유학적인 영향력 역시 개인 영역에서 미세한 결을 확보하고 있고 작품으로 연결되어 독특한 의미망을 거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7-551-A00103).

** 안동대학교 강사, 국문학 전공(sirapp@hanmail.net).

1) 김기승, 「유학적 세계관의 비판, 계승, 극복」, 『대동문화연구』, 29집(1994), 274쪽. 유교지식인에 있어 유교는 객관적 지식체계로서의 의미 외에도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이전의 의식구조로 자리잡고 있었다.

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지배자들의 유교에 대한 강고한 집착은 근대 유입에 많은 불협화음을 초래했지만 식민지화 과정에서 시작된 근대 유입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유학은 민족주의 계열과 친화성을 띄게 되었고 근대 작가들의 문학세계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베버에 따르면 유학은 일체의 형이상학이 결여된 무조건적인 현실긍정과 현실 적응의 윤리이다. 그는 동양을 주술적 정원, 실천적 합리주의, 문학적 교육주의, 효로 묶는 가족주의로 설명하였다.²⁾ 특히 문학적 교육주의의 경우, 시대변화 앞에서 유학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이다. 전통 동양사회의 유학자들은 문학지식과 교양을 통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교양과 품위는 지속되는 학습에서 쌓이며 최종 목적은 자기완성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런 교육과정과 유학적 사유는 근대로 변한 사회에서 갑자기 변화할 수 없었다. 문학적 교양이 유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지식이었던 것이 근대사회에서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중심이 놓이고 전문작가군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화되는 정도였다. 이런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학적 사유는 시대와 함께 변모되는 양상을 띠지만 근본 사유세계에서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장이 문학이라는 독립적 영역으로 분화되기 전, 문장가에 포함될 석주 이상룡, 조인석 등 이들은 철저한 유학사유 훈련을 받은 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주는 한일합병 이후 근대세계로 의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체적인 독립을 위해 행동하는 지식인의 전형이 되었다. 조인석의 경우, 보수적인 마을을 개화하도록 이끌고 남녀 차별 없는 평등을 교육에서 실천한 인물이다. 문중단위 일가친척들이 대부분이나 이들이 변화된 세계를 수용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앞장서서 실천한다. 오일도는 이념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민족 주체성을 중심에 둔 세계관을 보인다. 해방공간에서 좌·우익 갈등이 첨예할 때 역사적인 시각에서 당시 문제를 보는 객관적인 입장도 견지한다. 이런 그의 세계관은 일체의 징용과 공출 등 잔인한 식민정책의 현장을 작품으로 구체화하는 일로 연결된다. 이들의 문장을 통해 유학적인 전통을 파악하기로 한다.

2) 전태국, 「막스베버의 유교테제와 한국사회」, 『사회와이론』, 3집(2003), 64-67쪽.

유학 전통을 개인의 중요한 신념으로 확보한 지식인, 문장가 그리고 작가, 이들의 경향 가운데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개화에 반대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단발, 양력설 지내기 등 변한 현실에 주체적으로 대처하였다. 외세에 의존한 독립에 비중을 두지 않고 민족 중심의 주체적인 독립에 강한 의미를 두었다. 편협한 유학 신봉자가 아니라 유연한 유학자, 그리고 변화한 시대를 인정하고 근대라는 미지의 문화에 스스로를 전면 노출시킨 용기 있는 유학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을 묶어내는 공통점은 유교지식인이면서 근대로의 변화에 몸소 뛰어들어 독립운동, 사회운동, 문화운동을 이끌어낸 선각자의 모습이다. 시대에 부딪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생활세계를 변화시켜내기까지 한다.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걸었던 사람들의 문장에는 유학적 사유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의리·명분을 펼치는 문장

『석주유고』에는 근대전환기 유학자의 신념이 시대변화와 함께 변화해가는 양상이 잘 나타난다. 퇴계 이후 관념론으로 전개된 성리학적 질서를 그대로 독서한 유학적 지식인들에게 근대라는 사회로의 변화는 매우 생경하거나 불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주 이상룡의 세계인식은 두 차례 큰 변화를 맞이한다. 일제 식민지화 단계에서 무장투쟁을 과감하게 선택한 점과 또 하나는 한일합병 이후 만주 이주를 통해 무장투쟁과 독립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다.³⁾ 변화하는 시대와 역사 앞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를 선택했으며 명분과 대의에 충실한 길을 걸었다. 특히 그의 근대에 대한 이해는 「자유도설」에 잘 나타나는데 “법에 복종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문명한 자유이고 공을 해치고私를 도모하는 것은 야만적인 자유”⁴⁾라고 정리하였다.

이상룡의 세계인식의 바탕에는 유학 서적의 독서와 전통 생활의례가 깔려 있다. 서학, 양명학, 불교 등의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퇴계 이후의

3) 조수학, 「近代化期 嶺南漢學者의 思想動向」, 『모산학보』, 12집(2000), 205쪽.

4) 이상룡, 「自由圖說」, 『券之五』, 『石州遺稿(1집)』(고려대출판부, 1973), 212쪽.

정재학과의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국권상실 앞에서 인식과 사유의 방향을 점검하고 과감한 변화를 이룩하였다.⁵⁾ 이상룡의 유교사유가 근대적 변환기에도 적절하게 전통사유와 조우한 것은 대동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도라는 것은 대동의 도이다. 하늘이 사람을 낼 적에는 본래 평등하였으나 불평등이 생긴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도 포함시킨 사상이 바로 대동지도의 구체적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⁶⁾ 그의 생각의 변화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근대를 이해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권리는 시민 각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계약이며 이것은 대동의 도를 닮아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석주의 경우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저항담론으로서 대동사상이 자리하였다. “대도라는 것은 대동의 도이다. 하늘이 사람을 낳음은 본래 평등하였으나 불평등이 생긴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다.”⁷⁾ 대동사상은 서양 침탈 앞에 놓인 중국을 강건하게 지켜내고자 한 강유위의 생각으로 공자의 진정한 의도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상룡은 “국가도 없고 계급도 없어 전쟁과 대립에서 오는 참화가 근절된 평화로운 세계며 인종적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평등의 사회며 나아가서는 가족도 사사도 있을 수 없는 공공의 세계며 인류의 사랑이 동물에게까지 미쳐 불행과 고뇌가 완전히 사라진 태평극락세계”⁸⁾라고 보는 강유위의 사상을 꿰뚫고 있었다. 서구의 아나키즘과 매우 흡사한 사상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평등세계의 추구를 목표로 함을 알 수 있다.

이상룡이 식민화 단계를 예감하고 무장투쟁을 통한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불행한 국운 앞에 유교적 명분을 철저히 실행한 선비정신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런 지식인을 마을단위에서 양육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일을 통해 마을의 문화생산, 지식의 계승과 전통의 수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선비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을 변화된 시대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5) 박원재, 「석주 이상룡의 현실인식과 유교적 실천론」, 『오늘의동양사상』(예문서원, 2004), 384~385쪽. 이상룡 등이 대체로 주자학자에서 유교개혁론자로 사상적 전향을 감행하는 시점은 현실에 대한 주자학적 대응방식의 한계를 절감한 이후이다.

6)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廣義』, 『석주유고(하)』(경인문화사, 2008), 472쪽.

7) 이상룡, 『答宋釋鞏 基植』, 『石州遺稿』(고려대출판부, 1973), 137쪽.

8) 한관일, 「송기식의 『유교유신론』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문화』, 41권(2008), 202쪽.

유지했던 중심에는 가문의식에 바탕을 둔 유학적 신념이 있었다. 근대로의 전환기에서 구지식인들이 보여준 신념과 명분 있는 행동은 ‘입지’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⁹⁾ 그리고 이들이 한결 같이 자력이나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신념에는 중국 근대화의 실패가 거울이 되었을 것이다.

유학적 사유의 훈련은 독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학문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독서세계를 통해 ‘인’, ‘의’의 정신이 어떻게 체득되었는지 살펴본다. 독서방법을 물으러 온 젊은 친구(김석운)에게 평소 생각을 들려주는 작품에서 석주 이상룡은 젊은이는 성의가 부족한 걸 염려해야하는 것이며 학문은 원래 재주의 높낮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일러준다.¹⁰⁾ 또한 일상생활과 공부(道)의 세계를 구분하지 말며 한결같이 하라는 뜻도 전한다. “道란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행해야할 도리인데 경에 거한다(居敬)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요, 이치를 궁구한다(窮理)는 것은 도리를 끝까지 미루어 실행하는 것이며, 독서란 옛 사람들의 절도를 찾을 따름”¹¹⁾임을 말한다. 공부하는 선비를 일러 “문헌의 종자”¹²⁾라 밝히며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는 것이니 책 읽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독서라는 것이 글자만 익힐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훈(謀訓)을 익히고 의리를 밝게 익혀야 하니, 그것으로 심신을 기르는 밑천으로 삼고 국가에 쓰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유(先儒)들은 그것을 격치의 한 단서로 여겼다.”¹³⁾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 만권을 읽어도 보탬이 될 것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공부를 통해 터득하게 되는 지혜의 세계를 소개하는 글에는 앎의 엄밀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교의식을 제대로 드러내는 시 「지행」의 세계에는 “행치 않으면 앎이 밝지 않고/알지 못하면 행함이 정확치 않네/앎은 행함의 시작이고/행함이란 앎의 끝이네”(不行知不徹/付知行不中/知乃行之始/行爲知之終)라고 하여 지행합일의 세계를 다시 읊으면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세계에 대한 이

9)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상」, 『古文化』, 53집(1999), 51쪽. 선비정신은 무엇보다도 ‘立志’에서 비롯된다. 선비가 立志 즉 뜻을 세우지 못하면 나아갈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10) 이상룡, 앞의 책, 『券之一』, 4쪽.

11) 위의 책, 「答宋釋鞏 癸卯」, 『券之四』, 138쪽.

12) 위의 책, 『券之四』, 143쪽.

13) 위의 책, 「答孫童子相翼 丁未」, 『券之四』, 145쪽.

해와 깊이를 헤아리도록 인도한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학문에서 중요한 세계관을 제안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유학자들과 다를 것이 없으며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독립을 위한 투쟁적인 삶으로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독서와 관련한 시 몇 편을 살펴보면 서책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면 신념과 사유도 깊어진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 「서등」은 책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작가의 독서세계와 그 자세를 잃지 않는 경계심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책으로는 내 마음을 밝게 하고/등불로는 내 눈을 밝게 하네”¹⁴⁾라 하여 독서를 지속하고자하는 마음을 담았다. 「극중월」은 문틈으로 비친 달빛으로 책읽기를 쉬지 않는 작가의 모습을 선하게 그려볼 수 있는 글이다. 한밤중에 글을 읽다가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지자, 문틈으로 “밝은 달빛이 잘게 부서져 쏟아지니 그 빛을 하늘이 아끼는 사람을 배려하는 기운으로 읊는다.”¹⁵⁾ 독서에 대한 선비정신과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미감이 탁월한 문장이다. 「야독」은 새벽이 되도록 책을 읽는 풍경을 담은 작품으로 성현의 말씀과 신근을 생각하며 새벽까지 글을 읽는 내용이다.¹⁶⁾

사람 됨됨이를 쓴 시를 보면 결연한 무장투쟁의 삶이 거울처럼 나타난다. 『평담유고』를 읽고 차운한 시에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마음 때문이지 형체 때문이 아니지/진실로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사람이라는 이름을 괜히 얻은 것이지/이미 사람의 마음을 갖추었으면/마땅히 사람의 형체를 실천해야지”¹⁷⁾라 하여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었다. 만주이주를 결행하면서 주자학적 세계의 혼란이 갖는 한계를 토로하는 시가 있다. 관념적인 논쟁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한 유자들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이다. 독서자체의 부정보다는 변화한 현실세계 대한 몰이해를 지적한 글이다. 오십년간 읽은 공맹서에는 세밀하게 의리를 분석해 두고 있으나 사람 옷을 입은 것이 부끄럽도록 별 변화가 없다고 썼는데 이것은 공맹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사회를 바라보는 의식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다.¹⁸⁾

14) 위의 책, 「書燈」, 『券之一』, 3쪽.

15) 위의 책, 「隙中月」, 『券之一』, 3쪽.

16) 위의 책, 「夜讀」, 『券之一』, 8쪽.

17) 위의 책, 「閱平潭遺稿 敬次讀心經有感韻」, 『券之一』, 15쪽.

18) 위의 책, 「偶吟」, 『券之一』, 7쪽.

노년에 이른 몸으로 나라를 떠나 만주에 자리를 잡으며 추위를 겪는 과정은 말할 못할 불편함이 있었다. 주로 시를 모아둔 『권지일』의 작품 곳곳에서 그 실상이 드러난다. 사십년을 함께 지낸 형제간의 서러운 이별이며, 방이 추워서 몸이 얼어붙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그려져 있다. 회인현 북쪽 산 밑 빈집을 빌려 기거할 때 침상은 얼어붙고 솔단지는 싸늘하고 부엌에 군불 땀 흔적은 없었다. 이렇듯 풍찬노숙의 시간이 시작되던 시기 석주 이상룡의 정신세계는 더욱 무장되고 있었다. 남들과 달리 추운 북쪽 만주에서 살아가는 일은 몸이 피로우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¹⁹⁾ 배고픔과 추위 앞에서 웃음으로 대신하기도²⁰⁾하는 놀라운 의지를 발휘한다.

겨울의 추위는 끔찍할 정도인데 문풍지나 창을 발라둔 종이가 바람에 터져버릴 정도²¹⁾이니 만주의 겨울추위는 이미 49세인 이상룡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거국음」은 비장한 각오로 나라를 떠나며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말이자 스스로의 다짐을 담고 있다. 「이십칠일도강」의 넷째 시는 머리가 베어지더라도 무릎 꿇은 종은 될 수 없다는 결행의 이유와 명분, 변할 수 없는 각오가 드러난다.²²⁾ 만주생활을 담고 있는 작품 「원조」에는 쓴다섯을 맞이하는 설날 아침에 고향 떠난 객의 서러운 정서를 담아 회고에 젖어든다.²³⁾ 이국살이로 조상을 모신 선영을 찾지도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의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일제 식민지가 된 한반도를 두고 쓴 애절한 작품에는 무궁화는 떨어지고 제국주의의 겁탈이 산하를 피로 물들이며 백성들은 무참히 죽어나가는 시절 백이숙제의 절개가 무슨 도움이 되었나²⁴⁾라며 자조 섞인 마음을 드러낸다.

만주에서 독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와중에 쓴 글들을 통해 석주의 생각의 바탕과 신념을 헤아릴 수 있다. 독립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뒤, 일제의 간악한 행위를 담은 시에서 청산리전투의 승전보를 들은 기쁨을 담은 작품이나 승전의 기쁨도 잠시 군졸들이 모두 흩어진 사실에 가슴 아파한다.²⁵⁾ 반면, 청산리전투에

19) 위의 책, 「曉起口占示賁西丈」, 『券之一』, 25쪽.

20) 위의 책, 「次金賁西贈李溟坡韻」, 『券之一』, 28쪽.

21) 위의 책, 「冬夜無眠」, 『券之一』, 32쪽.

22) 위의 책, 「二十七日渡江」, 『券之一』, 25쪽.

23) 위의 책, 「元朝」, 『券之一』, 27쪽.

24) 위의 책, 「次金賁西贈李溟坡韻」, 『券之一』, 28쪽.

대한 양값음으로 일제는 양민까지 학살하는 일을 저지르는데 청산리전투의 승리와는 달리 벌어진 현실에 대해 분노를 삼켰다. 일본군이 연길, 훈춘 등을 지나는 길에 방화를 하여 동포들이 많이 죽었고 시가지가 온통 잿더미가 되었다.²⁶⁾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독립군이 러시아 땅으로 건너가는 편지를 보고 얼어붙은 산을 넘지만 하늘이 무심하지 않을 거란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다.²⁷⁾

「만주기사」는 열여섯 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로 신흥강습소를 열어 군사훈련과 학술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일제의 눈을 피해 실력을 키워 천황과 겨루려고 한다. 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소학기관(초등교육시설)이 서른 곳에 이르렀고, 추(鄒) 땅에서 밭 갈면서 비호같은 군사를 양성하였다. 부민단(扶民團)을 설립하여 통합자치를 이루기도 하였다. 자치의 명분으로 이주자를 통솔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또한 일제의 눈을 피해 계를 조직하나 밀고자가 있어 관리 자체가 쉽지 않다. 『장자』 「거협」편을 읽으며 회계출납의 근본문제를 성찰하기도 한다.²⁸⁾ 가난한 이주민들은 산간경작이 세금도 안 들어 산중으로 갔으나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렇듯 만주에서 생활은 특수한 기후와 토질의 차이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기도 한다.

이상룡의 문장관은 삶을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데 역점이 있었다. 인상적인 자연 풍경을 다룬 작품에서도 글의 목적은 유학이 추구한 도의 세계로 연결된다. 한일 합병 이전의 문장은 제자, 종손, 선비 등의 사회적 지위와 명분이 은연중에 반영되어 인격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전통사회의 문장관은 유교윤리를 반영하는 일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상룡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시는 독서를 돕고 펼쳐내는 창이 되었으나 한일합병과 만주이주 이후 독서는 의지를 표현하고 결행하는 다짐의 자리가 된다. 이때 유학적인 명분은 독립을 위한 실천적인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시 쓰기와 독서의 관련성을 정리해 보면 독서와 문학창작은 나눌 수 없는 구조로 인식하였다. 독서시 류가 창작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매개역할을 했으며 이 둘이 동시적으로 이뤄지면서 무장투쟁을 불사한

25) 위의 책, 「聞靑山一捷後 我軍散亡殆盡」, 『券之一』, 32쪽.

26) 위의 책, 「聞日兵所過燒殺 延埤等地盡化灰燼」, 『券之一』, 32쪽.

27) 위의 책, 「梁白堂圭烈書來 言我軍自敦化轉向俄領地」, 『券之一』, 33쪽.

28) 위의 책, 「自新契內 置株式新成號 頗希進展 一經敵劫 盡歸水泡」, 『券之二』, 42쪽.

실천적인 세계 안에서 문장이 놓여 있었다.

III. 덕성함양(德性涵養)과 생활개선을 교육하는 문장

『초독경편』은 한양조씨 집성촌인 주실마을에서 마을 청년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교재로 가장 우선시 되는 내용은 조선사회를 지탱해온 유교이념의 교육목표를 고스란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²⁹⁾ 물론 근대사회로의 변화된 현실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으나 생활과 상식을 교육하기 위해 유학적인 교양은 필수 요소였다. 급변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옛 것을 전통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필사본의 목차에는 유교질서를 가장 윗자리에 놓았으며 그와 유사한 개념을 몇 가지 더 보태고 있다. 또한 유교가치를 상식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류해 놓았다.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인간 됨됨이와 삶의 자세를 상식의 이름으로 설명해둔 것이다. 이것 역시 유교사회의 생활세계를 일상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유학은 시종일관 사회지향적 사상을 펼쳐왔다. 그러나 유학은 그 자체 속에 친절, 자애, 충성 등과 같은 순전히 인간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 깊숙이 파고 들 수 있었던 것이다.”³⁰⁾

유학적 세계질서의 학습 이외의 두드러진 내용은 근대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변화한 학문과 생활의 면모들을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물론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전통 유학질서의 가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근대의식을 육성하고자 한 조인석의 의도가 잘 보이는 항목으로 학문과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을 깨우치도록 독려한다. 근대문물 수용에 매우 적극적인 조인석은 단발, 양력설 지내기 등의 놀라운 변혁을 시도한다. 생활풍속에서 개혁을 이뤄낸 인물답게 마을단위에서 남녀 동등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지만 근본적인 유학적 가치가 변화하지는 않았다.³¹⁾ 근대문화 유입은 문장에서도 시도되었는데 조인석은 허구형식을 빌어 이야

29) 안동문화연구소, 『영양주실마을』(예문서원, 2001), 288쪽.

30) 뷰로프(저)/김태건(역), 『유학과 마르크시즘』, 『퇴계학보』, 63권(1989), 124쪽.

31) 윤철근, 『유학의 철학적 문제들』(법인문화사, 1996), 357쪽. 유학은 지식이나 논리의 구조 속에

기체 형식으로 토론체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문학장르가 소설로 진입하기 전단계의 신문형식인 「농촌방문기」는 필사본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 이전까지의 진술 형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허구적인 세계를 가공해 소설에 근접하는 문장이다.

이상에서 『초독경편』의 세계를 몇 가지 주제를 통해 분류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식 교육제도가 자리 잡히기 전 후세들을 위한 교육용 교재를 필사한 조인석의 세계관에서 유교적인 가치는 쉽게 보인다. 마을 청년교육에서 교재로 쓴 『초독경편』의 제일 첫째 목차는 윤리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유교윤리의 덕목을 나열하고 소개한다.³²⁾ 1장, 2장, 3장의 도덕적인 입장은 한결같이 성리학 적 사유 속에 놓여 있다. 윤리를 다루는 글에서는 인간의 위계질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가족 안에서도 그 차이를 통해 인간다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성리학적 윤리관은 현실세계의 질서까지 규제한 것인데 남녀유별, 장유유서 등의 유교질서를 통해 선악이 구분되고 지혜가 인정받는 사회와 가정을 지향하였다. ‘도덕’에서는 짐승과의 차이를 통해 인간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유식자, 유덕자, 지자, 강자, 부자 등은 세상에서 공존을 위해 자신보다 못한 상대를 보호하고 구해줘야 할 것을 당부한다.³³⁾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도덕은 금수와의 차별로 구분했다. ‘질서’는 윤리, 도덕의 내용과 차이가 없으나 남녀문제를 부가해두었다.

둘째, 유교가치와 질서를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기준을 세운 후, 생활세계에서 비껴갈 수 없는 상식으로 연결시켰다. 생활 속에서 상식만큼 구속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유교질서를 학습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러나 상식이란 것이 이미 일정한 이념과 역사 안에서 수용된 것이므로 유교질서를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을 지탱해온 공고한 이념의 세계가 바닥을 드러낸 근대로의 변환지점에 놓인 조인석은 낯선 근대문물의 수용과 전통가치의 지속이라

간혀있는 학문의 체계가 아니다. 귀족적 지식인들, 유학적 지식을 현시하고, 거대논리에 대한 관념적 유희를 즐기는 지식인들에게 유학적 정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32) 필사본 『初讀經篇』(정묘; 1927)에는 쪽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인용문을 그대로 신기로 한다. 인간이 만물 중에 귀한 것은 윤리가 있기 때문으로 부자유친, 부부유별, 형제우애이다.

33) 『初讀經篇』 2장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有識者는 무식자를 가르치고, 有德者는 무덕자를 勸하고 智者는 愚者를 警하고 强者는 弱者를 護하고 富者는 貧者를 恤하여 세상에 공존하도록 진력하나니,” 3장 “남녀가 분별이 有하여 風紀가 肅淸하고 幼가 長을 존경하여야 차서가 整定하고 惡이 善을 숭배하고 愚가 智를 모범하여야 사회가 진보하나니.”

는 양자를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이라 불리는 생활세계의 관습과 언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유교가치의 하위범주라고 해도 어색할 것이 없는 일상의 예의와 범절이 구체 내용을 이루고 있다.

5장부터 대부분 ‘상식’에 대한 논의이며 항목의 제목이 다르더라도 결국 상식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은 성리학적 사유세계와 차별성을 확보한 것은 아니며 유교적인 사회질서를 자세하게 분류하고 구분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다. 결국 상식이라고 하더라도 유교세계와 질서가 유지되는 한계 안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근대라는 변화된 세계를 인식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변동 안에 지속되는 전통과의 연결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범주 안에 생활과 일상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5장 이전은 유학적 질서를 그대로 담아낸 것이라면 상식에서 시작되는 유교사회에서의 생활세계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자세와 태도를 시사 하는 내용이다.

상식이 중요한 것은 학식보다 광범위한 일상성에 있는 것이므로 “인이 학식이 유하더라도 상식이 무하면 난면하나니”처럼 일반적인 사리분별이 삶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 외 염치, 계구,³⁴⁾ 신, 정직, 화순,³⁵⁾ 강맹, 세밀, 명찰, 겸손, 인내 등으로 전개되어 간다. 염치는 사람의 행동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힘이 됨을 시사하고, 계구는 두려운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으면 안하무인과 무례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³⁶⁾ 신과 정직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묶어서 보면 믿음이 없으면 사기꾼이 되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다.³⁷⁾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성공에 멈추지 않고 존경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화순’과 ‘강맹’은 매우 대조적인 의미이나 대상에 대한 주체의 입장에서 부드러움과 강함은 동시적인 현상이다. 심각한 일에도 부드럽게 타협할 줄 알아야 하

34) 『中庸章句』, 제33장 戒愼恐懼.

35) 『禮記』, 「樂記」 제19.

36) 戒懼가 無하면 위험이 즉지에 至하나니 高木에 勿上하며 深水 勿入하며 刀鉅을 勿執 未熟한 果를 勿食하며 染疾이 有한 家에 勿近하며 大寒과 酷暑에 勿犯하여 戒懼性은 잠시라도 忘할 수 없느니라.

37) 「正直」, 『初讀徑篇』, “正直之人은 不出詐曲之言하며 不作姦巧之事하며 不入淆雜之地하기로 平生에 舍名이 無窮하여 人이 敬服하고 尊仰하나니라.”

나 강한 면모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두 장에서 안내한다.³⁸⁾ ‘화순’과 ‘강맹’은 ‘겸손’과 ‘인내’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내는 인생의 지보이라.” 하면서 인내와 함께 겸손의 가치를 중요하게 진술한다. ‘화순’과 ‘강맹’, ‘겸손’과 ‘인내’는 상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루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임을 전달한다. ‘세밀’과 ‘명찰’은 큰일 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일수록 정성과 관심을 집중하라는 주제이다. 세상일은 “대체만 거하고 대강만 설하면 주사가 불완”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언급한다. ‘細’와 ‘明’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셋째, 상식교육이 『초독경편』의 내용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일상규칙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언어, 용단, 침중, 민첩, 안한, 근신, 경망 등도 역시 상식의 선상에서 묶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언어란 문신의 물”이라고 봐서 말을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이 원재료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말이 사람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용단’에서는 남자에게 있어 용기 있는 결단력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선, 악, 위험, 이익 등의 만사를 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용단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항목 ‘민첩’에서는 일을 하는 자세로 민첩함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민첩해야 인정을 받고 시간을 놓치지 않으나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³⁹⁾ 일의 사안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해야 하나 가볍게 행동하지 않을 것을 함께 지적하는 것으로 단순히 민첩해서는 안 되고 일을 함에 적절해야 하는데 바로 ‘침중’과 ‘민첩’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경망’과 ‘근신’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상보적인 관계이다. ‘경망’은 천박한 사람에게 주어진 재주나 명예는 무익하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이 요지이다.⁴⁰⁾ 재주와 명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38) 「和順과 强猛」, 위의 책, “氣候도 和春과 嚴冬 有하고 地球도 平野와 高陵이 有한즉 人城도 此와 同하야 厚德하고 和順만하면 有體無用하야 平生에 事業成就난 難坑坎이 至하고 背後에 劔戟이 隨하나니 順히 謙遜을 力行하야 自虛自卑.”

39) 「敏捷」, 앞의 책, “自古英雄의 事之成敗는 敏不敏에 在하고 時之早晚은 敏不敏에 辭하니 敏捷이 참 人類의게 至寶이나 過度하면 輕妄이 生하야 誤事하기 易하고 外筋과 同하야 人이 不信하기 易하니 此亦 研究할바이로다.”

40) 「輕妄」, 위의 책, “人이 薄有材譽하면 例多輕妄하니 輕者난 喜怒無常하고 去就無定하야 無終日之 決心하고 無終歲之親朋하야 不但百事不成이라 爲人笑資하고 爲世玩物하야 雖妻라도 不能信用하니 薄有材譽者 輕妄에 最히 注意할지이다.”

것보다 인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경망’을 통해 강조한다. ‘근신’은 황석공의 이야기를 옮겨온 것인데 스스로 비록 능력이 있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초월하는지를 의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는지를 의심하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넓혀 풍부하게 만드는 수양의 한 가지 덕목이다. 이 가운데 ‘안한’ 장은 마음의 평정을 제시하며 급하지 않고 바쁘게 서두르지 않아야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상식 세계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룬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계는 결국 자신 감정 다스리기로 요약할 수 있다. 16장 이하의 항목도 역시 상식 범주에 포함되나 상식을 더욱 세분화시키면 인간관계의 문제로 모을 수 있다. 유교사회의 생활세계에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생활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추측’은 매사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고 ‘징분’은 화내는 것의 위험함을 지적하면서 “분이 신을 해케하난대 참 이도로다”라고 정리한다. ‘실욕’은 욕망에 노예가 되지 말고 욕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제어해야 함을 담고 있다.⁴¹⁾

넷째 조인석의 근대의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항목 ‘학문’과 ‘위생’을 살펴본다.⁴²⁾ ‘학문’에서는 전통 유학이 아니라 서구과학기술을 배워야 하며, 위생 문제를 통해 청결과 건강문제를 알려준다. 우리 몸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담긴 것이다. 학문과 지식연마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먼저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학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도 상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학문이란 장은 하나로 그치지만 상식과 관련된 항목은 상식, 염치, 계구 등으로 구체적 진술이 뒤따른다. 조인석은 학문의 중요성 못지않게 상식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지닌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학문의 진지한 탐구와 함께 인간이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지식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장의 ‘연구’는 깊이 있게 사고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진정한 가치를 찾는 일의 의미를 제시한다. 특히 이 항목에서는 전통 유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양

41) 『室慾』, 위의 책 “飲食에 虛慾이 有하면 疾病이 生하고 工夫에 虛慾이 有하면 神經이 傷하고 財利에 虛慾이 有하면 敗家하고 名譽에 虛慾이 有하면 亡身”

42) 이영찬, 『유교사회학』(예문서원, 2001), 46쪽. 유교가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유교사상이 근대정신과 근대사회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여러 면에서 유의미한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과학의 중요한 가치를 알려준다.⁴³⁾ 결국 사물이해의 과학적 접근이 물리학임을 가르친 것이다. 서구 과학이 근대를 이끈 주체 동력임을 조인석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유학으로 대변되는 인문학적 세계 이외의 자연과학의 세계가 새로운 학문의 조류임을 감지하였다. 20장의 ‘수학’에서는 학문을 익혀서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근면하며 아주 짧은 시간도 아껴서 학문에 힘써야 함을 강조한다.⁴⁴⁾ 근대 이전의 학문이란 것이 문학 위주로 흘러왔으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학문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전문적인 학문영역이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조인석은 변화한 근대를 정확하게 바라보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근대문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위생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위생문제는 당시 일본이 주도하는 식민지문화를 국가체제로 이식하는 기능이 강하였다.⁴⁵⁾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는 근대문화집변에서 조인석은 위생교육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위생’ 장은 건강을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청결’ 장은 미세한 세균의 존재를 알리고 청결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⁴⁶⁾ ‘지신’ 장은 몸을 보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에게 품수’한 사실이다. 머리는 곧고 눈은 단정하고 손은 공손하게 받은 목직하게 허리는 굽지 않게 입은 가볍지 않게 갖추어야 하며 앉고 서는 것 역시 단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당시 다양한 수신서를 통해 조선민중의 몸을 계몽대상으로 설정하고 훈육하기에 이른 일체의 검열과 감

43) 「研究」, 앞의 책, 研究란 何오 思之又思릴 研究라한다 研究가 濳하면 天下에 難事 無하나니 엇지 하면 哲人이 되나 英雄이 되나 學者가 되나 夫人이 되나 晝夜研究하면 成就할 方法 生하고 物理 같은 것도 何質은 何物의 性이 有하니 研究하면 其發이 生 하나니 西洋人의 科學發達이 研究力 豊富한 原因이로다.

44) 「修學」, 위의 책, 修學은 一般이나 或成或不成은 何故인고 勤勉하야 不失寸陰하고 不泛一字한 人은 成이 有하고 怠하야 허명만 持하고 실학은 無하야 愉愉逃逸한 人은 成이 無하니 엇지 修學者의 警戒할바가 아닌가 古昔의 學은 다만 文學뿐이오 其餘諸學은 皆賤業이라 雜書이라하야 有志者는 掛眼치 안하드니 現今은 物質文明이 發達되야 醫學農學法學工學化學物理學이란 諸學科모다 利用厚生을 研究하고 生存競爭을 圖謀하야 專門科 大學科가 되어야 高等한 學文 占領하얏나니라.

45) 김순전·정주미, 「총독부편찬 『보통학교 수신서』에 나타난 신체적 규율」, 『일본어문학』, 33집 (2007), 350쪽.

46) “微菌이란 蟲類가잇어 飲食과 呼吸에 隨入하면 疾病이 生하난니 그거은 蟲類方盛하난 夏節에 怪疾과 痢症發生 되난 것은 見하면 丁寧히 證據가 안인가 하물며 父母生存한 人은 淸掃에 用力하고 濫淨에 注意하야야 父母도 生世의 況이 有하고 子도 人子의 道가 顯한다 假令 人家에 人하야 老人의 室에 惡臭가 刺臭하고 衾席之間에 無子한 老人으로 看做하나니라.”

시의 기능 아래 묶이는 담론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은 근대로의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화집변을 잘 드러내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생문제, 청결문제는 사회문제이자 개인 생명과 연결되는 지점에 있었다.

다섯째 「농촌방문기」는 허구적인 이야기로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가 공하였다. 조인석은 『소녀필지』라는 필사본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소개한다.⁴⁷⁾ 조인석의 문장관에서는 조선을 관통한 성정미학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학자의 심성을 도야하는 자연과의 조화와 내면의 평정을 다루는 글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까닭은 그가 문화집변기의 유교적 지식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니 그가 선택한 문장에서 사회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말하기는 어렵게 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토론체 문장은 본격소설이 도입되기 전에 흥미했던 장르이고, 계몽의 시선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그릇이었다. 그것이 허구적인 형식이든 시의 형식이든 다르지 않다. 허구적인 형식의 경우는 문장의 실제 목적이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 조인석의 허구적인 문장은 글을 통한 교육과 교화의 계몽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IV. 조상의 유품을 개인의 심성으로 내면화한 문장

식민지 당시 오일도의 문화활동은 출판사 경영과 함께 시전문지 『시원』을 창간한 일로 『시문학』이 더 이상 발행되지 못한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였다.⁴⁸⁾ 자유시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문학적인 성과를 축적한 시문학잡지의 폐간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에 가까운 길을 선택하였다. 오일도는 석주 이상룡, 조인석 등의 세대와는 달리 전문작가군이 형성된 시대였으므로 문학에 대한 장르의식이 있었다. 그럼

47) 조인석(저)/정양완(역주), 『20세기 전반경동기의 여성교육』(태학사, 2000).

48) 『시원』은 오일도가 1935년 2월 월간지로 창간한 시 전문지이다. 시 전문지를 표방하고 나선 잡지이나 1935년 12월 5호로 중간한다. 김용직, 『『시원』과 30년대 시단』, 『한국현대문학사(2)』(한국문연, 1996), 215쪽; 잡지 『시원』이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것을 언급한 김광섭, 「사랑의 신도 오일도」, 『현대문학』, 97호(1963), 264쪽; 오일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글로 조지훈 전집, 『수필의 미학』(나남출판, 1996); 김용성, 「문학사탐방: 고독한 서정의 조락」, 《한국일보》, 1973년 2월 18일자.

에도 불구하고 오일도를 비롯한 이 시기 작가들 대부분은 자유시와 한시창작을 겸비했다. 이 특별한 문학사적 현상은 이 시기 작가들의 개성이자 경향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⁴⁹⁾ 이런 특징의 단편을 오일도를 통해 파악한다면, 그가 가풍으로 지속되는 유교적인 훈육과 학습이 바탕이 되어 유교적 지식인의 책임감을 개인의 심성으로 가다듬은 바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을해명시선집』을 출판해서 연간시집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향 출신 요절 시인의 시집 『동진시집』을 출판하는 등 시인이면서 출판인으로서의 활동에 적극적이었다.⁵⁰⁾ 오일도의 작품세계는 한시의 현실주의 세계관과 국문시의 서정성이 조화를 이룬다. 일제시기 발표한 국문시에서의 서정성은 매우 우울하고 비감에 가득한 우수 어린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시인 개인의 지병과 시대와 역사의 우울 속에서 드러난 시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그의 한시세계는 적극적인 현실비판이 담겨 있고 일제의 공출, 징용과 관련된 내용이 시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현실극복을 향한 의지에서 유학적 지식인의 정서가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시는 비참한 식민지 현실을 잘 지적해내고 있다면 국문시에서는 조상으로 대변되는 전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재와 단절에 천착하고 있다. 식민지 현실을 다룬 한시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고 분노를 함께 느끼는 일에 적극적이다. 징용, 공출이라는 매우 민감한 사회문제를 시화한 오일도의 세계관은 공동체에 주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일도 역시 유년의 서당교육과 유학적 훈련을 받은 영향으로 순수서정시 계열에 포함되는 근대시를 썼으나 동시에 한시를 통해 부당한 것에 대한 의로운 정신을 드러내었다. 물론 한시는 생존해 있는 동안 발표하지 않았으나 비참한 식민지 현실에 순응할 수 없었던 심경을 처절하게 담았다. 근대시가 추구한 국문시는 한시의 자리까지 확보하는 장르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당

49) 문학사에서 근대와 전근대의 경계지점에는 다양한 문학장르와 현상이 놓여 있고 단편적인 관점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벅차다. 결국 전근대 문학지형도를 파악해야 근대 초입의 전근대적인 경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근대문학의 틀은 전통단절론이 암암리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노정된 대상이다.

50) 이하운, 「『노변애가』의 시인 오일도 형」, 『자유문학』, 4권 3호(1959), 130쪽. “자비로 「시원」을 십호가까이 계속 간행했다고 하나, 5호로 끝맺는다. 이하운은 “해방직후 우리동지들이 중앙문화협회를 창설하고 「중앙순보」를 간행하면서 제일착으로 「해방기념시집」을 편집, 발행하였으나 일도는 향리에서 늦게야 상경하여 그의 작품을 실릴 수 없었던 사실이다”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시 시인들에게 한시 창작은 낯선 문화가 아니었다.⁵¹⁾

그 가운데 국문시 「벽서」는 시인의 가치관과 삶의 세계를 받치는 문화적 배경에 놓인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남은 초집 벽에/피로 쓴 글씨//인생의 길은 약속도 없고/ 허다히 지나는 비바람에/이 벽마저 무너지면/외나무 다리 걸어온 내 집 력사를/어디에서 또 더듬으리오//깊은 밤 낙엽에 꿰어앉아서/삼가이 내 다시 글을 읽을 제/할아버지 허-연 수염이 바람에 날리다.” 시 「벽서」는 벽서가 붙던 초가집의 역사를 바로 생생하게 알리는 시적화자의 가문의 역사이다. “피로 쓴 글씨”는 혼을 다 바친 절규, 부당한 현실극복을 위한 처절한 행동과 실천을 상징하는 언어이면서 동시에 한 집안 나아가 가문의 정당한 위상, 떳떳한 존재이유를 드러내는 언어이다. 현실모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주장의 방법으로 벽서는 역사의 혼란한 시기마다 대중의 민의를 모으고 드러내는 중요한 지침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벽서를 쓴 집안이란 문제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사회와 집단의 대표임을 자임하면서 모순의 극복방법을 찾아 나선 주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 국문시에서도 민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담아낸 면모를 볼 수 있다. 「찬 벽」에서 “세계의 눈을 끄는 원자탄의 힘으로/영원히 전인류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정기도 전인생을 해결 못 하대야” 라고 하면서 정치 일반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식민지 문제적 현실을 담고 있다. 「올빼미」에서 “한낮에도 광명을 등진/반역의 슬픈 유족, 오오 올빼미여!!/자유는/이 땅에서 빼앗긴 지 오래였나니//혈전의 네 날카로운 주둥아리/차디찬 역사를 씹으며 이대로 감인할 것가” 라고 하여 마치 반역을 한 슬픈 족속이 된 듯 올빼미는 찬란한 신록과 햇빛 앞에 나서지 못하고 찬란한 만큼 우울해진다. 어둠을 기다리는 올빼미의 속성처럼 자유를 차압당한 민족이 되어 어둠 속에서 참고 살아갈 것인가를 되묻고 있다. 인적 드문 공간에서 해 지기만을 기다리는 애처로운 올빼미 같은 민족이 되고 말 것인가를 물으며 깊은 고뇌를 드러낸다. 좌절된 민족, 극복 불가능한 현실을 이야기

51) 오일도 시집은 오일도, 『저녁놀: 오일도 시와 산문집』(근역서재, 1976); 『지하실의 달』(문화공론사, 1977); 『영양시선집: 작고시인 편』(경인문화사, 1988) 등이 있다. 근대시가 한시의 정형을 깨고 자유롭게 창작되고 관련 잡지도 다양하게 출판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근대시를 쓰는 시인이 한시를 창작한 예는 청록파 시인들까지도 지속된 문화였다. 전통문학과 근대문학의 단절을 뛰어넘는 문학사가 스며있는 소중한 사실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오일도의 한시는 조선후기 이후 나타나는 현실주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면 그 연장선을 너무 뛰어넘은 평가가 될 것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식민지 한시 창작품에 그대로 계승되어 유학적 사유의 지속성을 담아내는 작품으로 「목면전」, 「송징용차」, 「노부탄」, (채상)「징용기피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목면전」을 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밖 서쪽 목화밭/낭군에게 생계는 중요하니/가을되나 별은 따갑게 내리쬐고/해가 다저도 광주리에 차지 않네/ 낭군이 있으면 밭 갈 매인테/멀리 떨어져 소리없이 눈물 흘리네/꽃이 피는 것은 눈이 밝은 것과 같고/조급하게 돌아가니 어린아들이 맞이하네/면서기는 서둘러 공출을 하고/밤 깊어 비로소 베틀에 오르네/가르치는 아이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어느날에 다스리오 귀장(길 떠날 차비)/때때로 혼란스러운 집안의 놀라운 일/인정은 멀어지네/ 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진실로 어렵지만/사람에게 베풀기를 평생 좋아하네.⁵³⁾

목화밭은 먹고사는 일에 중요한 공간이며 목화솥을 따도 양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일할 사람은 징용에 끌려간 상황이다. 또 어린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고 면서기는 공출을 서두르니 늦은 밤에 베 짤 시간도 부족한 농가의 현실이 애절하다. 남편은 징병에 끌려가 목화를 딸 사람도 없는데 약삭빠른 면서기는 바빠 공출을 거둬간다. 낮에는 밭일을 혼자 하고 한밤중에 베틀에 올라 베를 짠다. 집안은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고 인정은 갈수록 멀어진다. 공출의 부담을 갈수록 무거운데 일을 할 인력도 집안에는 없다. 여자 혼자서 일을 해서 공출을 감당하고 나면 먹고사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래도 또 삶을 지속해야 했던 식민지 당시의 농촌아낙네의 슬픈 현실이 보인다.

그의 시 「적설」, 「강촌설월야봉고인」 등에서 이별은 만주이주로 발생한다. 떠나는 사람마다 슬픔뿐이지만 엄청난 각오와 결행으로 이뤄진 북행이라고 할 수 있다. 「송징용차」는 우리집이 대로변에 있으니/보내고 보내니 어찌 눈물이 다하리/마

52) 윤동계, 「오일도·조지훈·김종길의 한시와 현대시 상관성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12쪽.

53) 「木棉田」, 城西木棉田 郎君重生計 秋來陽曝處 盡日不盈筐 郎君在時耕 遠別泣無聲 花發雪如明 歸忙釋子迎 面吏急供出 夜久始登機 教子未及人 何日理歸裝 時時混家驚 經經遠人情 養親難盡誠 與人好平生.

을골목에 사람이 없어 텅비네/하늘은 어찌 뜻이 없는지/아침저녁으로 차가 이어지고 있네/돌아갈 기약을 물을 길이 묘연하네/대낮의 고요함에 닭, 개소리 들리네⁵⁴⁾라 하여 식민지의 악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은 대부분의 민중들이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전쟁터의 인간방패며 갖은 만행으로 이어진 일제의 잔악한 술책으로 조선반도가 거덜 나고 있었던 것이다. 징용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태운 차가 아침저녁 긴 줄로 이어지는 행렬은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다. 징용간 자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마을과 골목은 텅 비어 인적은 드물어지자 개, 닭소리만 간간이 들리는 마을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노부탄」에서 늙은이는 길가에 앉아 있고/끓어죽는 일 또한 어쩔 수 없어/공출은 높은 산의 풀과 같아/열매마다 여름햇별이 쏟아지네/일어나 손자 안을 힘도 없으니/밭에 보리는 어찌 베야 얻을까/뺏고 거두는 것을 후세에 남기네/너와 더불어 어찌 망하지 않을 것인가⁵⁵⁾라고 읊었다. 젊은 남자는 징용으로, 농사지은 곡식은 공출로 이어진 식민지 현실에서 늙은이가 길가에 앉아 죽어가는 일은 크게 놀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공출량은 헤아릴 수 없이 증가하고 너무 오래 끓은 노인 은 손자조차 안을 기력이 없다. 밭에 보리가 있지만 추수가 끝나면 또 공출로 뺏길 뻔임을 알고 있으니 차라리 함께 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비감에 찬 저항적인 목소리로 울부짖는다.

「징용기피가」(채상)에서는 들을 건넌 연기 숲에 가득하고/뿔을 따려하나 얻지 못하네/낙엽은 바람따라 흩날리고/이웃집은 하루종일 문이 잠겨있네/꿈속 혼은 아득히 멀리 소요하고/다만 긴 나뭇가지에 기대 흔드네/흐린 마을에 개짖는 소리 들리고/밤은 길고 등불의 밝기는 미약하네⁵⁶⁾ 라고 하였다. 징용을 피해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집으로 돌아와 잘 보이지 않는 등불을 밝혀 일하는 이야기이다. 눈을 피해 살다보니 뿔을 딸 겨를이 없고 발각될까 노심초사한 심정만 날 서 있다. 그 외 시인의 만주기행을 짐작할 수 있는 만주관련 시편에서 식민지 현실의

54) 「送徵用車」, 吾家大路邊 送送淚何盡 村巷無人空 皇天豈無意 朝暮車連綿 歸期問杳然 晝靜聞鷄犬 桑海自深淺

55) 「老父嘆」, 老父路邊坐 餓死亦不能 供出高山草 果果夏日曝 抱孫起無力 田麥那刈得 奪徵世傳名 與汝奚得亡

56) 「徵用忌避歌」(採桑), 野渡烟樹迷 採桑採未得 落葉風蕭蕭 隣家終日鎖 天涯夢魂遙 徒倚拂長條 渾村犬吠聲 夜久小燈明

암울을 파악할 수 있다. 시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백번 읽고 백번 울고 만주시편을 지었다는 말⁵⁷⁾은 식민지 생존공간으로서의 만주, 투쟁공간으로서의 만주를 아우른다. 스스로 병들고 외로운 심사를 읊은 시에도 마음에 칼을 닦는 비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대구역을 출발하여 한양을 지나(「만주행일숙」) 압록강을 건너(「압록강」) 도착한 만주는 언어와 풍속이 매우 낯설지만 곶양주를 마시며 취기에 의지에 소원함을 달랜다(「호마」-호주). 황량하게 넓은 들판은 더욱 싸늘해지고 책 읽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만주 어느 마을에서 그리운 형제를 떠올리며 외로워한다. 형제, 벗 등과 이별한 긴 여정에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한다(「기사형」). 「압록강」은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자니 철교 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철교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찬 기운을 머금고 흘러가는데 조선반도의 끝, 국경부근에서 고단한 여정을 스스로 달랜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두고 묻는 질문에는 전쟁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있는가 이나 사실상 승자 없는 전쟁의 부당함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만주정복으로부터 태평양 전쟁이 패전할 때까지 지속되었던 일제의 전쟁은 필리핀 등지를 돌며 확전을 계속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전쟁의 무모함, 잔인함을 묻는 일이 이 시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특히 아들에게 보내는 글(「기차아」)은 아버지가 왜 긴 여정길에 올라 찬 얼음과 서리를 밟다가 상처를 내는지를 알린다.⁵⁸⁾ 또 아내를 주제로 쓴 시(「기소부」)에서는 곡진한 그리움을 잘 담아낸다. 헤어진 후 마음을 달래지만 다시 압록강을 건너기는 요원하여 찬 배개머리에서 부인의 꿈을 꾀다.⁵⁹⁾ 만주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엿보이는 작품들은 「도박군」, 「청루원」, 「인가상」 등이 있다. 하룻밤에 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벌이는 도박판의 다툼과 간도의 청루거리에서 본 조선 여인들의 비애와 가난한 이웃인 평양사람이 노모상을 당한 일 등은 고향 떠난 자들의 뿌리 뽑힌 삶을 보여준다. 「세모」에는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황량한 겨울벌판에 헤진 옷에 구걸하며 세모를 맞이하는 극한 상황이 있다.⁶⁰⁾

57) 「滿洲行一束」, 讀至千秋棠棣篇 百讀百泣此詩成, 「秋感」(懷) 丹心藏一劍 當年子美淚

58) 「寄次兒」, 父何客路長 寒北踏水霜 旅榻寒如水 身家豈能全 汝行將有期 如何運命路

59) 「寄少婦」, 一別空相憶 傷離採蘋綠 鴨江渡無期 寒枕一夢成 江流豈終極 忽然在君側

60) 「歲暮」, 衣蔽路上乞 身命一葉輕 百年壯志摧 荒野茫無際 萬里歸心絕 何處掘吾穴

만주시편에서 시인을 가장 우울하게 만든 일은 집 떠나온 외로움이나 형제간의 이별이 아니라 정벌을 떠나는 말 발자국 소리처럼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비가」에서 세월은 더해 가고 사람들은 더욱 초췌해지는데 전쟁은 언제 그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전쟁이 종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쟁에 대한 관심에서 더욱 잘 읽힌다. 시 「성변류」는 성 근처 버드나무 가지에 봄은 왔지만 정벌하러 떠난 사람은 멀리 섬에 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애타게 그리고 있다. 계절은 무심하게 봄을 알리지만 전쟁은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일도의 국문시와 한시에는 집안의 유풍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며 특히 식민지민의 처참한 생존의 현장을 고발하듯이 담아낸다. 유교의 가부장적인 신념 아래 형성된 저항의식은 전통논리 가운데 가풍을 중심에 두고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들어 유학적 질서는 사라지고 배척되는 시간을 맞는다. 표면적으로 전통과 근대는 단절되어 있고 도저히 통용될 수 없이 분리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강했다. 특히 전근대사회에서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정형시의 틀이 부서지고 자유시 형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유학적 사유는 그리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으로 근대 식민지 상황에서 문학자들은 고향과 가계를 자아를 향한 불안한 세계의식을 담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유학자들이 공존하는 시공간에서 근대로의 변화는 시작되었으며 전통의 비중은 당시 창작된 한시를 통해 헤아릴 수 있다.

오일도의 문장에서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 공동체조직과 조화롭게 구성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공동체는 유교지식인이면 누구나 이상세계로 났고자하는 대동사상의 사유와 맥을 같이 한다. 그가 추구한 문학세계는 도덕적인 개인주의의 지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전통 유학에서 유학자들이 설정한 성인되기의 근대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을 대상화하여 개인이 덕을 닦고 수양하는 방식이 국문시에 담겨 있고, 한시에서는 식민지모순을 드러내고 극복하자는 실천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의 유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근대문학의 다양한 실험 안에서 한문이라는 언어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문학사에서 자유시의 등장은 전통과 경계짓는 일이었지만 동시대 안에서 정형시를 그대로 고수한 한시를 창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후기 현실주의 경향을 잇는다는 기존의 평가도 있듯이 책임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의무감을 가풍과 유업으로 내면화한 것이다.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현실을 반영해낸 문장은 유학적 지식인이 이상으로 삼은 본질의 세계에 가닿는 방편이다. 유학가치의 흔들릴 수 없는 개념들이 근대라는 틀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한시의 문장을 통해 훼손된 가치를 불러낸 것이다.

V. 나오는 말

이상룡, 조인석, 오일도는 생애시간이 비슷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일한 문화풍토에서 자란 공통항이 있다. 특히 영남권을 고향으로 두고 유년을 보낸 이들에게 전통문화로서 유교사유는 대단히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구한말, 개화기, 식민지를 통과 해방기 자리까지 유학적 사유는 이들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가족의 끈으로 묶이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구한말, 개화기, 식민지 시기는 이 세 인물이 모두 다른 연령대에서 통과했던 시대이므로 그 만큼 전통세계가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해방기에 이르면 조인석, 오일도가 역시 연령대를 달리하면서 통과하는데 이들에게 전통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현실조건으로 놓여 있었다.

구한말을 살았던 이상룡은 과거시험을 준비했던 유학자이며 사서오경 속에서 학문체계와 시쓰기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문중을 이끌던 종손으로 유교질서에 충실한 본보기로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그도 국가의 위기를 목도하고 새롭게 유입된 낯선 근대문화를 익히면서 전통으로서의 유교적 사유가 지닌 한계와 모순을 스스로 극복해나갔다. 유교가 지향하는 윤리를 몸소 실천하는 지식인에서 변화된 근대생활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모한 지식인의 면모를 갖추었다.⁶¹⁾ 이런 결과는 만주이주와 독립운동의 결행으로 나타났으며 문학세계 역시 독립을 위한 과정에 놓여 있는 실천적인 세계를 이루었다.

1910년에 중부의 개가를 허용하고, 1911년에 노비를 해방한 주실마을(경북 영양)에서 자라서 개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조인석은 시인 조지훈의 조부이다.

61)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푸른숲, 2004), 269쪽. 유교를 새로운 진보를 위한 대안적 자원으로 삼을 때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전통 그대로의 전통 회복은 안 된다는 점이다. 철저한 자기비판을 거쳐 살아남은 전통, 근대성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요청되는 대안적 사고로서 전통, 바람직한 삶을 위해 인류에게 보편적인 가치규범이 될 수 있는 전통을 말한다.

물론 주실마을은 석농 조병희의 단발에서부터 양력설을 쇠는 근대적인 변화를 마을단위에서 시작한 곳이다. 이런 문화풍토에서 유년을 보낸 조인석에게 전통으로서 유교가 지닌 측면은 누더기 관념에 머물지 않았고 삶에서 소중한 지혜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소년들을 위해 『초독경편』, 마을 소녀들을 위해 『소녀필지』라는 교재를 필사해서 학교교재로 사용하였다. 그 교재에는 전통으로 호명될 유교적 사유와 질서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근대적인 학문과 기술, 여기에 근대문화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않았다. 변화된 세계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허구적인 이야기를 구성하여 재미있고 실감나게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여성교육 교재에는 남녀 차별적 세계관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나 상당히 진전된 면도 보여준다.⁶²⁾

일제시기를 시인으로 시전문지 편집인이자 출판사 경영인으로 활동했던 오일도는 잡지를 통해 발표한 국문시에서 우울과 비애의 정서를 주로 담아냈다. 그러나 미발표작 한시에서는 비애에 멈추지 않고 현실비판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며 일제의 역사적인 만행들을 작품에 담았다. 징용, 공출, 만주사변에서 시작되는 일제가 저지른 전쟁 등을 표현했다. 일본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새롭고 낯선 근대체험을 몸소 겪었던 그에게 전통가치의 하나인 유교적 질서는 오일도 개인의 문화에서 중요한 풍토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서전처럼 읽히는 「벽서」라는 시에서도 드러나듯 조상의 유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후손의 자리에 시인이 있었고 언제나 그 부담스런 호출을 감당하며 스스로 책임지려 한 점에서 유교적 영향력을 헤아릴 수 있다.

참고문헌

『中庸章句』; 『禮記』.

김광섭, 「사랑의 신도 오일도」. 『현대문학』 97호, 1963, 261~264쪽.

62) 김우형·이창일, 『새로운 유학을 꿈꾸다』(살림, 2006), 226~227쪽. 서구적 합리성으로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할수록 신유학은 칭산해야 할 부정적인 전통유산으로 계속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서구 합리성의 부정적 한계를 지적하는 노력이 커질수록 신유학은 계승해야 할 전통 유산으로 계속 등장한다.

- 김기승, 「유학적 세계관의 비판, 계승, 극복」. 『대동문화연구』 2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4, 273~301쪽.
- 김순전·정주미, 「총독부편찬 『보통학교 수신서』에 나타난 신체적 규율」. 『일본어문학』 33집, 한국 일본어학회, 2007, 349~367쪽.
- 김용성, 「문학사탐방: 고독한 서정의 조락」. 《한국일보》 1973년 2월 18일자.
- 김용직, 『한국현대문학사』(2). 서울: 한국문연, 1996.
- 김우형·이창일, 『새로운 유학을 꿈꾸다』. 서울: 살림, 2006.
- 박원재, 『오늘의동양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4.
- 뷰로프(저)/김태건(역), 「유학과 마르크시즘」, 『퇴계학보』 63권, 퇴계학연구원, 1989, 124~131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석주유고』(상·하). 서울: 경인문화사, 2008.
- 안동문화연구소, 『영양주실마을』. 서울: 예문서원, 2001.
- 영양문화원, 『영양시선집: 작고시인 편』. 서울: 경인문화사, 1988.
- 오일도, 『저녁놀: 오일도 시와 산문집』. 서울: 근역서재, 1976.
- 오일도, 『지하실의 달』. 서울: 문화공론사, 1977.
- 윤동재, 「오일도·조지훈·김종길의 한시와 현대시 상관성 비교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0.
- 윤친근, 「유학의 철학적 문제들」. 서울: 법인문화사, 1996.
- 이상룡, 『石洲遺稿: 後集』. 서울: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1996.
- 이상룡, 『石州遺稿』. 서울: 고려대출판부, 1973.
-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서울: 푸른숲, 2004.
- 이영찬, 『유교사회학』. 서울: 예문서원, 2001.
-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상」. 『古文化』 53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9, 41~54쪽.
- 이하윤, 「『노변애가』의 시인 오일도 형」. 『자유문학』 1959년 3월호, 128~138쪽.
- 전태국, 「막스베버의 유교테제와 한국사회」. 『사회와이론』 3, 한국이론사회학회, 2003, 39~84쪽.
- 조수학, 「近代化期 嶺南漢學者의 思想動向」. 『모산학보』 12집, 동아인문학회, 2000, 201~227쪽.
- 조인석(저)/정양완(역주), 『20세기전반 격동기의 여성교육』. 서울: 태학사, 2000.
- 조인석, 『少女必知』. 영양: 필사본.
- 조인석, 『初讀徑篇』. 영양: 필사본.
- 조지훈, 『수필의 미학』. 서울: 나남출판, 1996.
- 한관일, 「송기식의 『유교유신론』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문화』 41권(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197~225쪽.

국문 요약

석주 이상룡의 문장관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의리·명분을 펼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전통 유교담론에 충실하게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는 의리와 명분에 어긋나지 않은 지언행(知言行)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조인석은 문장을 통해 사람을 교육하는 실용적인 길을 걸었으며 덕성함양(德性涵養)과 생활개선을 교육하는 문장을 과감하게 선택하였다. 더 나아가 허구적인 문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였다. 문장에 대한 의식이 분화되던 시기의 인물인 오일도는 당시 풍미하는 근대문예사조를 따르기보다는 조부의 유업으로 드러나는 전통가치를 개인이 내면화하여 공동체의 선을 목적에 두는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더구나 전통장르 한시를 창작하면서 언어형식을 통해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해냈던 것이다.

이상룡, 조인석, 오일도는 이들은 동일한 문화풍토에서 자란 공통항이 있다. 특히 영남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유년을 보낸 이들에게 전통문화로서 유교사유는 대단히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구한말, 개화기, 식민지를 통과 해방기 자리까지 유학적 사유는 이들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가족의 끈으로 묶이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구한말, 개화기, 식민지 시기는 이 세 인물이 모두 다른 연령대에서 통과했던 시대이므로 그 만큼 전통세계가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해방기에 이르면 조인석, 오일도가 역시 연령대를 달리하면서 통과하는데 이들에게 전통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현실조건으로 놓여 있었다.

이상룡, 조인석 등은 철저한 유교사유 훈련을 받은 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주는 한일합병 이후 근대세계로 의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체적인 독립을 위해 행동하는 지식인의 전형이 되었다. 조인석의 경우, 보수적인 마을을 개화하도록 이끌고 남녀평등을 교육에서 실천한 인물이다. 문중단위 일가친척들이 대부분이나 이들이 변화된 세계를 수용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앞장서서 실천한다. 오일도는 이념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민족 주체성을 중심에 둔 세계관을 보인다. 해방공간에서 좌·우익 갈등이 첨예할 때 역사적인 시각에서 당시 문제를 보는 객관적인 입장도 견지한다. 이런 그의 세계관은 일제의 징용과 공출 등 잔인한 식민정책의 현장을 작품으로 구체화하는 일로 연결된다.

- 투고일 : 2009. 1. 12. ● 수정일 : 2009. 7. 11. ● 게재확정일 : 2009. 9. 9.
- 주제어(keyword) : 유교미학(Confucianism aesthetics), 유교가치(Confucianism value), 만주 시편(the Manchu Literary), 소녀필지(girl study), 시원(Si-Won).